

명품 해안코스 따라 자전거로 즐기는 여수

오동도~여자만 등 3개 코스

홍보물 1만2000부 제작·배포

풍광 즐기며 상쾌한 라이딩

라이딩족들이라면 몸이 근질근질할 시
기다. 햇살이 따사롭고 바람이 살랑이면서
자전거를 타기에 좋은 계절이 다가오고 있
어서다. 어디로 페달을 밟을 지 뒤적이는
라 바쁘다.

여수시가 최근 명품 해안 라이딩 코스를
담은 홍보물 1만2000부를 제작, 배포한 것
도 자전거여행의 매력을 느낄 계절이 다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여수의 자전거 코스는 느낌의 묘미를 만
끽할 수 있다. 모든 코스는 바다를 따라 펼
쳐지는 경치를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
는 게 특징이다.

여수시가 관광객, 라이딩족들을 겨냥해
조성한 자전거길은 ▲오동도~여자만 코
스 ▲오동도~화태대교 구간 ▲가사리방
조제~화양면 공정리 구간 등 3개 코스다.
오동도~여자만 코스는 오동도를 출발,
당두~넙너리~히든베이호텔~성본교차
로~여자만(북촌)으로 이어지는 41.3km
구간이다.

오동도를 비롯해 진남관, 여수해양공
원, 낭만포차, 이순신광장, 돌산대교, 소호
동동다리 등 여수 도심의 매력을 한껏 느
낄 수 있는 볼거리가 즐비하다.

특히 여자만 구간은 붉은 저녁노을을
따라 라이딩을 즐길 수 있는 명품 해안 자
전거도로로 입소문이 나 동호회원들이 꾸
준히 라이딩을 즐기는 곳이기도 하다.

오동도~화태대교 구간은 오동도에서
거북선대교~도실삼거리~화태대교~송



짐을 꾸러라. 그리고 날이 따뜻해지면 페달을 밟고 떠나라. 발길 닿는 길목에 있는 먹거리는 덩이다. 여수시 소라면 자전거길을 달리
고 있는 라이딩족. <여수시 제공>

시삼거리까지 이르는 25km 코스다. 거북선
대교와 여수해양케이블카, 돌산공원에 무
슬목 등 바다와 어우러지는 풍광을 한껏
접할 수 있어 여수 라이딩의 백미로 꼽힐
만하다.

가사리 방조제부터 감도~이목~화양
면으로 연결되는 19.4km 구간은 고즈넉한
어촌 풍경을 따라 드넓은 갯벌과 울창줄
망한 섬들의 어우러짐을 볼 수 있는 구간
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아름다운 여수에서
자연과 함께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며 일상
의 스트레스를 해소하시기 바란다”고 말
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 여수 명품 해안 자전거 코스

오동도 당두 넙너리 히든베이호텔 소제교차로 성본교차로 가사리방조제 여자만(북촌)



오동도
동백나무와 신이대를 비롯 194종의 희
귀소목과 기암절벽이 섬 전체를 감싸고
있고 3.4월이면 붉은 동백으로 물들어
바다의 꽃섬이 된다.

1코스



여자만
웅장한 갯벌과 청정한 해역으로 온갖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여자만 석양의
노을은 황홀한 경관을 연출한다.

오동도 거북선대교 도실삼거리 화태대교 송시삼거리



무슬목
몽글몽글한 몽돌은 멀리 무인도와 조화
롭다. 이순신 장군이 왜군을 이 곳으로
유인하여 큰공을 세운 곳이기도 하다.

2코스



화태대교
하늘과 바다를 잇는 화태대교는 멀리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비경이 한눈에
들어오고, 주변 경관도 빼어나 아름답
다.

가사리방조제 오천/이천 감도 이목 별가 공정마을



오천/이천
이곳의 해변에는 오천, 이천의 드넓은
갯벌과 섬들이 어우러져 잔잔한 감탄을
자아낸다.

3코스



이목
여수에서 하루 해를 가장 늦게까지 볼
수 있는 곳이다. 또 저녁노을이 아름답
고 낚시꾼들도 즐겨 찾는 곳이다.

여수시, 올해도 모든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여수시가 올해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
는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자전거를 타
는 시민들의 안전을 챙기면서 자전거 이용
을 활성화 하자는 취지다.

보장 기간은 오는 2월 7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로, 지난해 말 기준 28만6382명(15
세 미만 3만7176명)인 여수시민들은 자동
으로 보험 수혜자가 된다. 시민들이 자
전거를 타고 가거나 보행 중 자전거 관련
사고를 당할 경우 사고 지역과 상관없이
최대 2500~30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과 후
유장애 뿐 아니라 진단위로금(20~60만
원), 입원위로금(20만원), 변호사 선임비
용(200만원) 등도 지원받는다.

여수시가 운영하는 공영자전거 ‘여수
랑’ 이용자의 경우 사망·후유장애 3000만
원, 사고 배상책임 최대 1억 원, 입원 1일
당 1만 원을 보장받는다.

여수시는 지난해 70건의 자전거 사고에
785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자 증가
로 늘어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
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전거 이용 활성
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올해 소라면 죽림삼거
리~가사리 YMCA 3.8km, 전라선 옛 기차
길 3.5km, 시청~여수산단 13km, 죽림~세
포 18km 등에 자전거도로를 신설할 계획이
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GS칼텍스 여수공장·남해화학 채용시

올해부터 여수 시민에 가산점 준다

여수시민들은 올해부터 GS칼텍스㈜
여수공장과 남해화학(주) 채용 과정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여수시와 지역 기업들의 협약에 따른
것으로, 다른 기업들로 확산할 지와 젊
은층 인구 유입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지역 공장과 지점 등을
갖춘 산단 내 대기업들의 경우 여수에
대해서만 가점제 적용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자칫 파급 효과가 미미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2일 여수시에 따르면 GS칼텍스와 남
해화학은 올해부터 신규 채용 과정에서
여수시민들에 대해서는 서류 전형 때 5
점 이내의 가점을 주는 제도를 시행한다.

이들 기업은 응시자가 채용 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여수시로 주소를
둘 경우 가점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들 기업은 지난해 여수시와
‘가점제 적용 업무협약’을 맺고 상생발
전과 여수지역 청년실업 해소, 인구 증
가 등을 위해 협력기로 했다.

여수시는 ‘여수시민 가점제’로 기업
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고 시민들의 합
격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점에서 적용
기업들을 확대하는데 공을 들이고 있지
만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여수산단 내 대기업들은 전국 곳곳에
지점과 공장 등을 두고 있어 특정 지역
에서만 가점제를 시행하기가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수시는 오는 29일 열리는 여수산단
총무부서장 간담회와 2월 1일 예정된
여수산단 공동발전협의회 등에 참석,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한다는 방
침이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익산국토청, 여수·고흥권 해상교량 관리사무소 운영

최근 개통한 팔영대교를 비롯, 여수·
고흥권 해상교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사무소가 운영된다.

22일 여수시에 따르면 익산지방국토
관리청은 최근 동남권역 해상교량의 유
지·관리 업무를 담당할 특수교 관리센
터 여수사무소를 신축기로 하고 공사에
들어갔다. 여수사무소는 27억 9900만
원을 들여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일대

지상 3층 규모(연면적 994㎡)로 지어지
며 올해 말 준공된다.
돌산대교만 관리할 목적으로 건립된
기존 사무소의 경우 거북선·백야·화태

대교, 소록·거금·팔영대교 등 7개로 관
리 교량이 많아진데다, 화양대교, 조발
대교 등이 준공되는 2019년 이후 유지
관리를 맡을 교량이 10개교로 늘어나면
서 신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여수사무소는 해상교량을 실시간으
로 들여다볼 수 있는 최첨단 CCTV와
지진 계측기 등을 갖추게 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여수
사무소 신축을 계기로 여수·고흥권 해
상교량이 더 효율적이고, 더 안전하게
관리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 시민 반값 할인

여수시민들은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
수를 절반값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2일 한화아쿠아플라넷 여수에 따르면
지난해 입장객 100만명 돌파를 기념, 여
수시민들은 오는 31일까지 반값 할인된
금액으로 아쿠아리움을 관람할 수 있다.
할인을 받으려면 현장에서 신분증을 제시
하고 BIG2-A, 아쿠아리움을 구매하
면 된다. 또 여수 시민을 위해 동반 1인까
지 전 품목 20% 할인도 진행중이다.
아쿠아플라넷 여수는 지난 2013년 제
개장 이후 독거노인, 기초 수급자, 장애
인 등 소외계층에게 감장감차, 밤차 제
공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 중
이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여천NCC 드림봉사단

희망밥차 배식·설거지 봉사

여천NCC 3공장 근로자들로 구성된
드림봉사단은 최근 중화동 해양공원의
희망밥차를 찾아 배식·설거지 봉사활
동을 펼쳤다.
희망밥차는 동여수노인복지관이 운
영하는 시설로, 봉사단은 매월 희망밥
차와 복지관 경로식당을 돌아가며 봉
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봉사단은 또 지역 내 소외계층 40세
대 등을 찾아 이불을 전달하며 위로했
다.
황채동 드림봉사단 회장은 “작은 것
이지만 어르신들이 겨울을 따뜻하고 건
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최고의 투자가치 / 자신있게 추천 / 사정상 **급매** 합니다.

- 전북 순창군 구림면 화암리 411-10번지외 10필지
(월정 삼거리 코너, 구 월정초등학교 자리)
- 대지 5843평, 건물 512평
- 계획관리지역/ 학교용지 등등
- 현재 관관농원/ 펜션/ 식당/ 캠핑장 운영중
- 2차선 도로접, 삼거리 코너, 계곡등 최고의 위치
- 연수원/ 수련원/ 요양(병)원/ 펜션/ 캠핑장 등등
모든 용도개발 가능
- 시세 30억, 급매 20억 (일시불 조건)
- 주인직매 010-3605-5000

